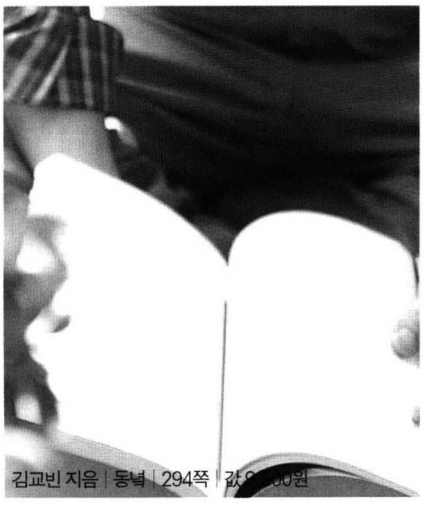
한국에도 철학은 있다!
원효에서 정약용까지 한국철학의 맥짚기

철학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어렵고 고리타분하게만 느껴진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출판을 중심으로 철학의 대중화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침체기를 맞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출간된《한국철학 에세이》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가운 책이다. 저자인 호서대 김교빈 교수(50)는 철학의 대중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철학 전공자이다. 그가 학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기철학氣哲學을 여러 층위에서 해명하는 것이지만, 한국철학을 일반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리는 작업에도 남다른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 그가 1993년 펴낸《동양철학 에세이》는 난해한 동양철학의 의미와 맥락을 알기 쉽게 풀어써 철학을 대중들에게 가깝게 접근시킨 노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관심은 이후 자신의 전공인 한국철학으로 이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철학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건 무조건 낡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편견과 우리



김교빈 지음 | 동녘 | 294쪽 | 값 [illegible]원

철학은 서양철학보다 열등하다. 혹은 터무니없이 우월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편견들이 이 책을 통해 바로잡혔으면 합니다."

한국철학이 이처럼 왜곡되고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는 한국철학을 알리는 작업을 등한시한 학자들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것과 아울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한다. "근대의 여명기에 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는 일본 식민교육이 강요했던 이른바 '데칸쇼(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철학에만 치중했어요. 그 결과 관념적인 서양철학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한국철학의 주체성과 전통성 확립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죠."

이 책은 표면적으로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국철학의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개론서이지만 그 바탕에는 한국철학을 복원하겠다는 저자의 만만찮은 의도가 깔려 있다. 화엄사상을 기조로 한 '합침'의 철학으로 한국 불교철학의 맹아를 싹틔운 원효로부터 '돈오점수'를 주장한 지눌, 그리고 기철학의 대가 서경덕, 이언적, 이황과 이이, 정제두, 조선 후기 실학자인 박지원과 정약용까지를 두루 다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 면면히 이어져 온 한국철학은 과연 어떻게 요약 될 수 있는가가 궁금해진다. "한국철학이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체계화된 정신의 원형이면서 한국인의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을 가리킵니다. 아울러 한국의 정치와 사회 발전의 방향성까지 제시할 수 있는 사상을 담고 있는 철학이 진정한 한국철학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철학 중에서도 김 교수가 유독 관심을 기울이는 쪽은 기철학과 실학이다. 그는 책에도 실려 있는 양명학자 정제두의 철학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양명학은 조선시대 지식사회의 주류를 이룬 주자학에 반해 훨씬 실천적이고 진보적이며 사회참여적인 측면이 강한 철학이었다고 설명한다. "아카데미즘에 머물러 있는 철학은 참된 철학이 아닙니다. 정제두가 말한 것처럼 만물의 이치가 전부 자기 마음 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진정한 철학의 정신입니다."

그의 사상적 개념인 무실務實이 안창호에게 이르러 발현된다는 주장이나, 이이의 사상에서 실학자들의 철학적 기반을 발견해 내고 있는 것은 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김교빈 교수만의 참신한 해석이다. 그는 자신의 논문에 관심을 표명한 미국 학자와 공동집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재 김도언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